

## 세계최초로 돼지유행성 설사병예방약 개발

돼지 유행성 설사병(PED) 예방약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농촌진흥청 가축위생연구소(소장 : 이재진)에서는 최근 양돈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돼지 유행성 설사증에 대한 예방백신을 개발하여 양돈농가에 희소식을 안겨 주게 됐다.

돼지에 설사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병중 돼지 설사병 대장균증, 살모넬라, 로타 바이러스, 전염성 위장염(TGE), 돼지콜레라 등은 예방약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으나, 돼지 유행성 설사증은 지금까지 예방약이 개발되지 않아 세계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질병으로 이번에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세계 최초로 백신을 개발한 것이다.

PED는 TGE와 같은 종류의 바이러스 전염성으로서 70년대부터 유럽지역에서 발생이 보고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새끼돼지가 설사병에 걸려 25%가 폐사한 피해를 경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병에 대한 예방약은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항생제를 통한 치료 역시 불가능하고 단지 위생 관리에만 의존하고 있어 이 질병의 유행시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보아왔다.

앞으로 가위연은 농림수산부와 협력하여 긴급가축방역비 8천만원을 투입, 10월 중순까지 야외적응시험을 추진하여 효과를 검정한 후 올 10월 하순에 특허를 출원하고, 11월에 예방약 제조업소에 기술을 전수하여 올해 말부터 예방약을 대량생산해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 축사 신고면적 1백20평으로 확대

건설부는 양축농민의 축사건축 비용 절감을 위해 신고에 의한 축사 건축면적을 현행 60평에서 1백20평으로 확대토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시행령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된 입법예고에 따르면 현재 도시계획구역밖에서 신고만하고 건축할 수 있는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의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60평)미만에서 400제곱미터(1백20평)미만으로 확대했다.

이는 이미 건설부와 농림수산부간에 합의한 사항을 법적으로 뒷받침 하는 것이며 이규모 이상의 축사를 신축할 때는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농지조성비 면제

### —농업진흥지역 밖 5,000m<sup>2</sup>이하 농지대상

농림수산부는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밖 5,000m<sup>2</sup>이하 농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유기질비료 제조시설(개별농가 비료화시설, 축분발효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농지조성비 전액을 면제해 주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92년 12월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법개정 등으로 대상 농지가 농지 조성비 감면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높아 농림수산부가 시·도에 이를 다시 확인해 준 것이다.

감면대상사업은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로서 축산진흥기금이나 농어촌발전기금이 보조되는 사업이며, 감면대상 시설은 발효처리조, 저장탱크설

비, 톱밥 등 원자재 보관창고, 제품보관창고, 기계·장비 기타 비료제조공정에 필요한 시설부지 및 사무실, 주차장 등 필수적인 부대시설이다.

감면대상농지 및 면적은 농업진흥지역밖 5천m<sup>2</sup>이하 농지이다.

## 돼지고기 4천톤 또 수입

돼지고기가 추가로 또 4천톤이 수입된다. 이로써 올해 돼지고기 수입량은 모두 2만톤이 된다.

농림수산부는 지난 15일 올여름의 폭염과 각종 질병으로 돼지고기의 출하물량 부족에 따른 가격의 강세현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이같이 수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농림수산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돼지고기 수입안정을 위해 1만톤외에 6천톤을 추가로 수입하고 있으나 이 물량으로는 돼지고기 가격을 안정시키기 어려워 또 추가하여 4천톤을 수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사료용 보리 10만톤 첫 수입

올 하반기부터 사료용 보리가 배합사료 원료로 수입된다.

이에따라 한우고기·돼지고기의 품질경쟁력 강화와 배합사료업계의 경영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축산농가와 사료업계가 요구해 온 사료용 보리수입을 긍정적으로 검토, 올해 5% 관세로 10만톤을 수입해 배합사료 원료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료용 착색대맥은 옥수수, 소맥(밀)과 더불어 3대 주요 사료곡물로 국제가격이 옥수수보다 톤당 30~40달러씩 싼데다, 사료효율이 다른 사료보다 월등히 높은 곡물이다.

그동안 축산업계는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쇠

고기, 돼지고기의 육질개선 효과가 큰 보리를 수입해 배합사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으며, 정부는 보리재배 농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보리 수입을 불허했다.

## 오제스키병 전국서 다발

지난 '90년 이래 거의 발생을 보이지 않던 돼지오제스키병이 금년 들어 전국적으로 다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오제스키병은 '90년 1백90두 발병, '92년 2두 등 거의 발생을 보이지 않았으나 금년에는 1월부터 6월말까지 2백14두가 발생했고, 6월 한달만 하더라도 50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각종 전염병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돈농가들의 철저한 예방관리는 물론 국가방역체제에서 자유방역체제로의 전환 및 가축방역사업비 확보의 적극적인 추진과 방역행정조직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일본, 가축분뇨 퇴비 이용 적극 지원

일본 농수성은 7월 31일 내년도에 가축분뇨를 퇴비로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대장성에 제출했다.

일본 농수성은 축산환경대책을 강화하고, 지역환경에 알맞는 축산으로 육성하기 위해 환경보전형 축산확립 대책사업비를 25억7천5백만엔(약 206억원) 확충했다.

농수성은 환경보전형 농업추진을 위해 ▲퇴비처리시설 정비 ▲퇴비 이용 촉진 ▲처리기술 실용화 촉진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경종농가에서도 퇴비 비용을 적극 촉진하기 위해 심포지움과 공청회를 개최하고,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일본 농수성은 이밖에도 축산환경 정비사업에 37억3

천6백만엔(약 299억원)의 예산을 확충, 축산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가축 배설물 환원용 초지와 가축 배설물 처리시설, 환경보전림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양돈용 배합사료 생산량 회복세

지난 여름 폭염으로 7월의 양돈용배합사료 생산량이 312,050톤에 그쳤으나 8월의 생산량은 15.4%가 늘어난 360,236톤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8월의 양돈용배합사료 생산량을 품목별로 보면 갓난 돼지, 비육돈전기, 비육돈후기, 번식용수·암돼지사료는 각각 소폭 증가했으나 젓먹이돼지(10,736톤), 젓펜 돼지(6,821톤), 육성돈(19,236톤), 임신돈(3,184톤), 포유돈(4,107톤)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양돈용 전체배합사료 생산량은 360,236톤으로 전월대비 15.44%, 전년동월대비 1.84% 각각 늘었다.

## 돼지도체 등급기준 조정 방침

농림수산부는 26일 농림수산부 소회의실에서 양돈관련업계 회의를 갖고 현행 돼지도체 등급기준으로는 수출규격돈의 A등급판정출현율이 낮게 나타남에 따라 이를 개정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현재 도매시장(서울)으로 출하되고 있는 돼지의 출하체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등지방두께가 두꺼워 지고 있기 때문에 등급별 도체중량과 등지방두께의 범위조정이 불가피함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부는 박피인력측정시 도체중량을 A등급의 경우 상한선을 현행 75kg에서 81kg으로 6kg 상향조정 하고, 하한선을 현행 54kg에서 55kg으로 1kg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등지방두께를 A등급의 경우 상한선을 현행 14mm에서 16mm로 2mm 상향조정 하며, 하한선을 현행 4mm에서 6mm로 2mm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규격돈의 상위 A등급 출현율이 거세돈은 현행 1.0%에서 10~15%, 전체로는 현행 6.4%에서 15~20% 각각 증가해 양돈농가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 상반기 미국 육류 및 부산물 수출 크게 증가

올 상반기 미국산 육류 및 부산물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육류수출협회(US MEF)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 미국이 수출한 육류 및 부산물은 모두 49만1천2백74톤으로 전년동기의 43만5천4백46톤보다 12.8%인 5만5천8백28톤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 보면 쇠고기 및 부산물의 경우 37만1천6백50톤으로 전년동기의 33만4천4백30톤보다 11.1% 증가했고 금액면에서도 1백28만5천1백20달러로 전년동기의 1백23만1백71달러보다 4.5%가 증가했다.

돼지고기 및 부산물도 11만9천6백24톤으로 전년동기의 10만1천16톤보다 18.4% 늘어났으며, 금액은 27만1천1백6달러로 전년동기의 25만8천3백35달러보다 4.9% 늘어났다.

미국의 상반기 육류 및 부산물 수출량은 모두 49만1천2백74톤으로 전년동기의 43만5천4백46톤보다 12.8%, 총 금액은 1백55만6천2백6달러로 전년동기의 1백48만8천5백6톤보다 4.5% 각각 증가했다.

##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개정

농림수산부는 가축질병에 대한 신속 정확한 역학조사 및 병성감정 실시로 가축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 13일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을 개정 고시하고, 곧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기관을 가

축위생연구소, 국립동물검역소,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농림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을 가축질병 병성 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가축위생연구소장에게 제출하고, 가위연소장은 병성감정실시에 필요한 실험기자재 및 병성감정실시 기술인력 등을 평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면 장관은 보고서 검토후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 전국 농민단체 농정감시회의 발족

지난 9월 12일 전국 농업기술자협회 대강당에서는

「전국 농민단체 농정감시회의」의 발대식 및 토론회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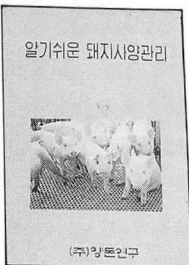
본회와 한국낙농육우협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대한양계협회 등 총 13개 농민단체들로 구성된 농정감시회의는 초대 상임대표로 박덕영 한국농어민후계자중앙연합회 회장이, 집행위원장은 김시약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사무총장이 각각 선출되었다.

농정감시회의는 앞으로 대통령선거 농정공약과 정부의 각종 농정시책 등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어 열린 분야별 토론회에서 본 회의 노영한 전무는 "양돈산업 육성정책"이란 주제 발표를 하였고, 그외 13명도 분야별로 주제발표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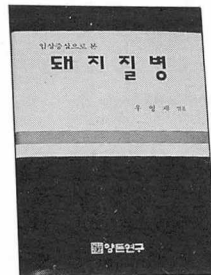
## 양돈연구가 펴낸 전문서적은 양돈농가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 알기쉬운 돼지사양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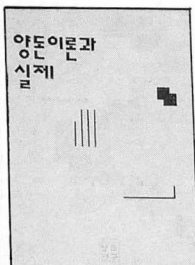
저자 石井泰明씨가 일생동안 양돈업에 종사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집필한 책자! 사양관리에 관한 이 책자는 너무나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잘 알면서도 간과하거나 무시해 버릴 수 없으며, 양돈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수록돼 있다.  
국판/185면/값 6,000원

### 임상증상으로 본 돼지질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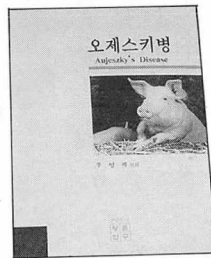
그동안 월간 양돈연구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임상증상으로 분류하여 성돈, 포유자돈, 이유후에서 출하까지의 질병과 주요증상에 따른 질병사례, 방역대책 등을 집대성한 전문서적이다.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하드카바·양장제본을 했다.  
신국판/648쪽/값 15,000원

### 양돈이론과 실제



국제적인 컨설턴트인 존 가드(John Gadd)씨가 그동안 경험을 토대로 집필한 양돈실무 지침서! 이 책은 모돈·수퐁지·포유자돈과 이유자돈·비육돈관리에서 경영 및 기록관리, 환기 및 시설관리, 질병관리, 선진 양돈현황 등 분야별로 다양한 내용이 수록돼 있다.  
국판/440면/값 10,000원

### 오제스키병



국내외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엮은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우리나라의 오제스키병 발생과 대책, 제2장 일본의 오제스키병 발생과 대책, 제3장 세계 각국의 오제스키병 방역대책, 제4장 오제스키병의 예방접종과 검사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수록했다.

국판/280면/값 10,000원

전문서적  
구입방법

양돈연구의 전화 (02)578-1411~2로 문의, 신청하거나 책값을 온라인(단위농협 100013-51-023501  
예금주 : 양돈연구)으로 송금하고 연락처를 알려주면 된다.